



지표로 미래가 본 2012년

김현회 원컨네트웍스 사업총괄본부장

이제 마지막 달이다. 좋든 싫든 한 해를 결산할 때다. 국내외 경기, 건설 현황 등에 관하여 여러 곳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. 우리 설비건설 가족들도 차분히 한 해를 돌아보며 내년을 준비해야 하겠다. 이번 칼럼에서는 각종 지표들을 살펴 보고 2011년 분석과 동시에 다가오는 2012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. 건설산업에 관한 한 올해가 쉽지 않은 해였지만 내년도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. 좀 더 냉철하고 보수적인 계획으로 새해를 맞아야 하겠다.

(2011년 11월~ 2011년 12월 자재 동향)

자재 전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STS관, 인하 또는 동결 전망 - 강관류, 전반적 보험세 유지하나 물량별로 차등 예상 - 동, LME 인하 예상. 단, 환율과 국제정세가 변수 - 형강류, 동결 또는 소폭 인상 전망
강관 및 관련 제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형강류는 원제품 수입 물량에 따라 국내 생산분 단가 소폭 상승되거나 현 상태 유지할 것으로 보임 - 강관 제품은 12월까지 큰 변동 없이 현 단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 초에 단가 인상 움직임이 보일 것임
동관 및 관련 제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1월 LME 시세는 813원 인하된 8,768원으로 확정 - 런던금속거래소(LME)에서는 톤당 7,500불 전후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음. 현재까지 kg 당 약 140원 정도 인하 되었으나 잔여 기간 거래 분을 감안하면 12월 LME 시세는 20원~ 60원 선에서 인하 예상되며, 유로존 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
STS관 및 관련 제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1월 STS관 BASE는 동결됨 - 원소재의 단가는 인하되고 있으나 부속류에 대해서는 약 10 ~ 30% 정도의 인상 반영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, 파이프는 연말까지 큰 변동 없이 이어지다 2012년 상반기에 인상된다는 예측이 지배적임
구매 전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설시장 및 전체적인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 자재 수입량, 환율, 국내 생산량 등 감안해야 할 변수들이 많아져 가격 동향 파악이 더 어려워지고 있음. 제조사, 대리점, 각종 언론 등 정보원들과의 다양한 접촉으로 최저 단가 공급사를 적시에 정확히 파악하고 기존의 주 거래업체와도 밀착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임

[2011년 / 2012년 주요 경제 지표]

2011년 3/4분기 경영 실적	212개 상장사 중 67% 영업이익 감소 또는 적자
2011년 수출 증가율	21.4%(2010년 : 28.3 %)
2011년 3분기 가계부채 증가액	45조 5546억원 (2010년:39조 5664억원)
2012년 경제전망	한국 3.6%(2011년 : 4.0%) 세계 3.5%(2011년 : 3.8%) 선진국 1.3%(2011년 : 1.6%) 신흥국 5.6%(6.0%)
2012년 설비투자 증가율	4.3%(2011년 : 5.4%)
2012년 건설투자	3.5% 증가 예상(비주거용 건물 건설 증가, 주거용 건 물, 토목 건설 감소)

(자료: 원컨네트웍스 2011년 11월,]
삼성경제연구소/건설경제/대신증권 자료 참조)

IMF 위기는 물론 외환 위기 시에도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어려움을 극복했다. 미국을 비롯하여 현재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리스, 스페인, 이탈리아 등 유럽의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확연히 그 차이를 알 수 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는 그리 좋지 않다. 무엇이 문제일까? 사실,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. 다른 나라들과 견주어 보면 분명히 우리나라가 성장 속도 면에서 상당히 빠르다. 하지만 도표상의 금년 3/4분기 경영실적-상장사 중 67% 영업이익 감소 또는 적자 기록-에서 보는 것처럼 그 열매가 일부에 편중되어 국민 대부분이 피부로 실감하지 못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. 더 결정적인 것은 전반적으로 위기 직후보다 지표상으로는 좋아졌지만 과거 호황기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.

이런 상황에서 도표의 각종 지표들은 내년 경기가 더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. 그 동안,

죽은 내수를 받쳐 주던 수출이 그 증가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것과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. 작년 3분기에 39조였던 부채 증가 폭이 올해는 45조로 늘어 총 892조를 기록하고 있다. 내년도 설비 투자 증가율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 국내의 경기가 모두 다시 하향세로 돌아선다는 의미이다. 또 주택 건설의 기초가 되는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국내 건설 역시 희망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. 삼성경제연구소의 전망에서도 2012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.6%이고 세계경제 역시 3.5%로 모두 올해보다 떨어진다.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내년도 건설투자는 약 3.5% 정도 증가한다는 것이다. 하지만 그것도 비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주거용이나 토목 쪽은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. 이렇게 볼 때 결론은 명확하다.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장기전에 대비하여 체력을 비축하고 조직을 슬림화하며 작더라도 확실하게 돈이 되는 쪽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. (C)



김현희(金炫會) 총괄본부장

- 現 원컨네트웍스 사업본부장
-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업
- 삼성그룹 디자인연구소 및 UCLA Extension 수료(멀티미디어 부문)

- 삼성화재 홍보, 시장개발, 인터넷 사업 담당(사보, 사장단 연설문, 방송PD, 보도자료, 인터넷 기획, 전국 애니카랜드망 구축 등 담당)